

2024년 4월호
(04.24)

미국주식이야기

ALPHAMIN RESOURCES [AFMJF]

☀️ 주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에 주목하라!



주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

4월 시장이 좀 힘들었죠?

전쟁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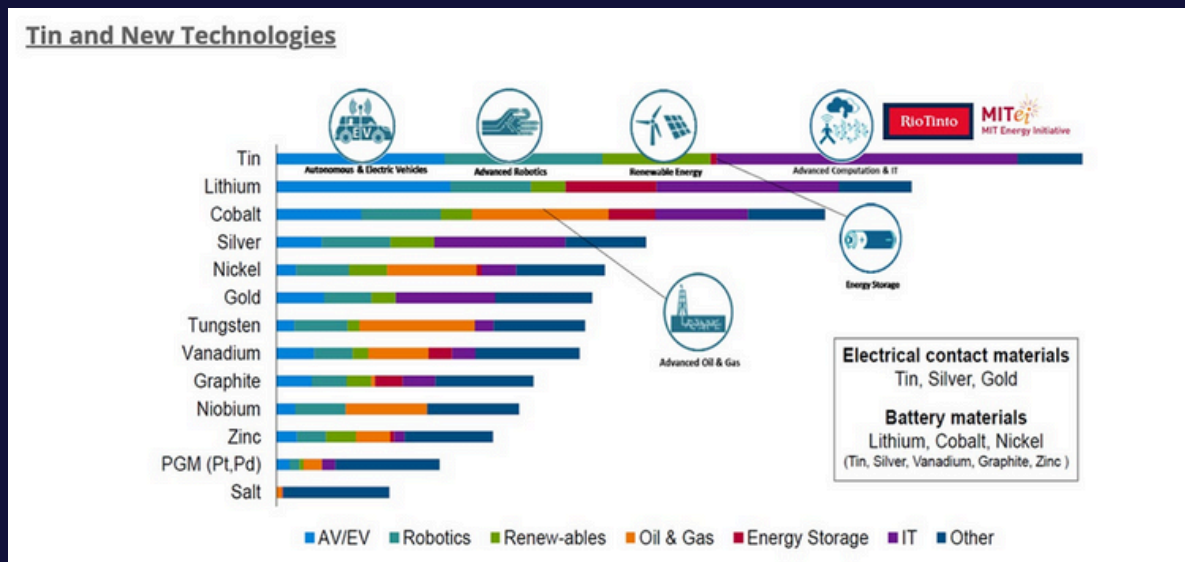
저희가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구리랑 우라늄, 기억나시나요?
2024년 들어 단 4개월 만에 각각 18%, 14%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미주이 포트폴리오도 S&P500 보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익숙했던 낮은 인플레이션,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높은 인플레에 돈은 더 뻣뻣해지고, 자원도
부족해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특별한
금속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주석인데요 (영어로는 TIN), MIT에서 리오 틴토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 이 금속이 앞으로의 '신기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주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

주석 시장 규모는 구리의 2%밖에 안 될 정도로 작지만, 우리 일상에는 매우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회로 기판에서 전자 부품들을 연결해주는 납땀에 주석이 쓰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주석 없이는 우리가 익숙한 '전자기기'들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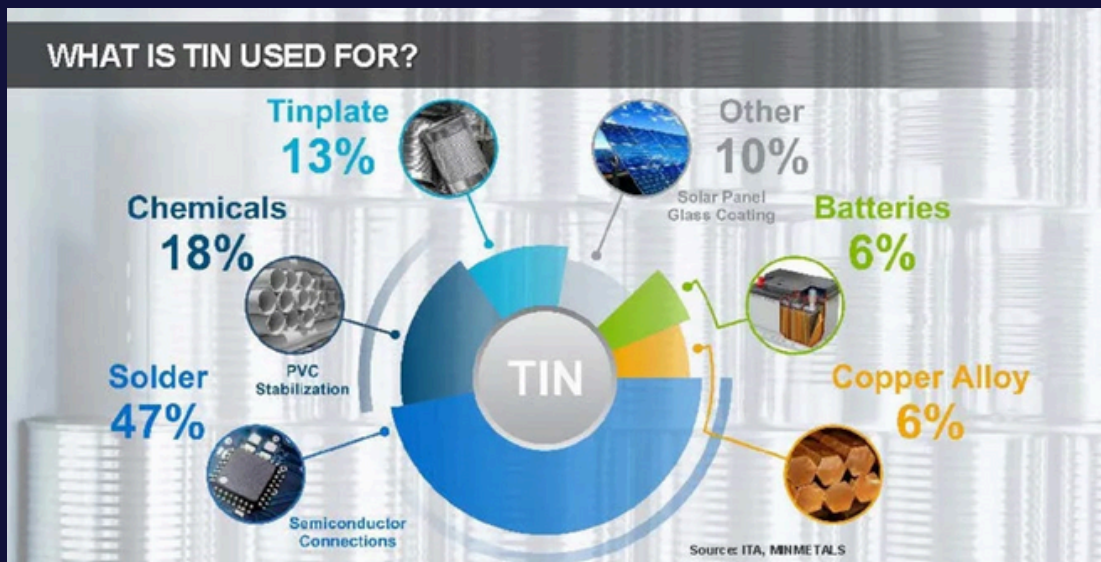
앞으로 5G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이 발전하면서 주석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5G는 기지국이 더 촘촘해야 해서 전송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사물인터넷은 수많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려면 회로가 더 필요하죠.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 센터까지 더해지면 주석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도 주석 수요를 부추기는 주범입니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주석을 두 배나 더 사용하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는 솔라 리본에도 주석이 쓰이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더 널리 쓰이면서 수요가 더 늘겠죠.



주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문제는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선 주식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데요, 지난 20년간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22년 초에는 공급 부족 우려로 주식 가격이 톤당 5만 달러 까지 치솟기도 했죠.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다시 하면서 수요가 줄어들 거란 얘기에 가격이 또 빠졌어요.

그런데 최근엔 수요가 살아나면서 다시 공급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세계 3위 주식 생산국이었던 미얀마가 최대 광산을 닫았거든요. 중국은 이 광산에서 나오는 원료에 의존했는데, 이젠 다른 데서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중국 내 가뭄까지 겹쳐서 수력발전이 줄어들고, 전력 사정이 나빠지면서 중국의 주식 공급은 더 힘들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주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중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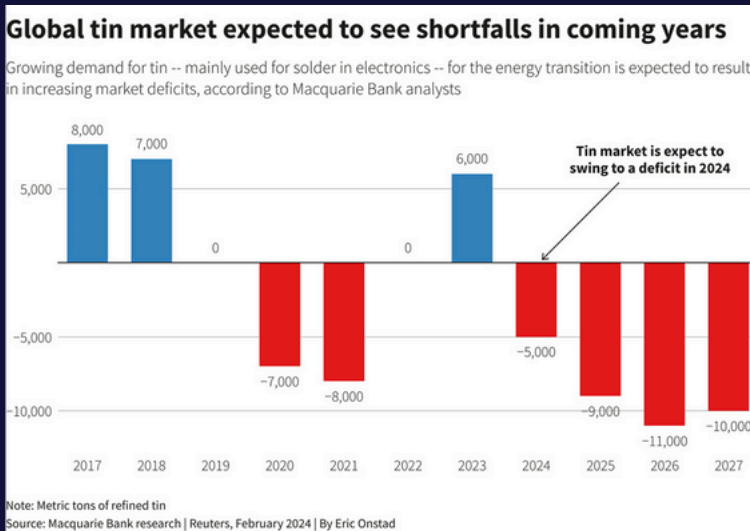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주식 수출량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주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

여기에 올해 인도네시아에선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들 모두 '다운스트림화 (Downstream)'
정책을 밀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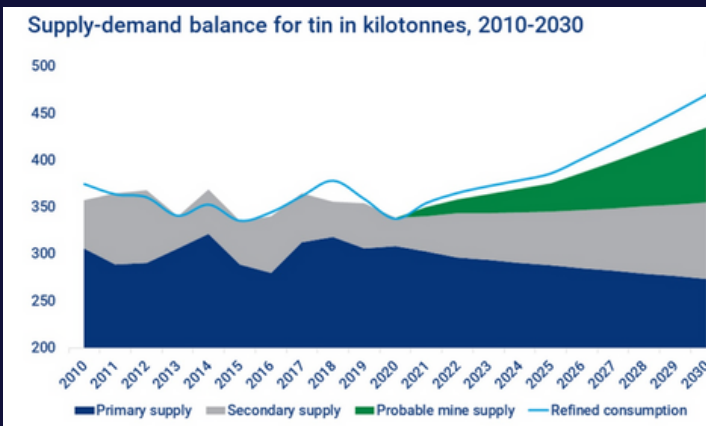
쉽게 말해 원자재를 그냥 수출하지 말고 현지에서 가공해서 팔라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수출은 줄어들겠죠.



이런 정책이 니켈 산업에선 이미 먹혀들었어요.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니켈 수출 가치가 단기간에 10배나 뛰었다고 해요.

인도네시아로선 주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주식 시장이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주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

그럼 광산 회사들은 왜 새로운 광산을 열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새 광산을 가동하려면 무려 10년 정도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해요. 단기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엔 너무 느린 거죠.

두 번째는 주석 시장 자체가 작아서 그래요.
연간 수요가 400만 톤, 시장 규모로는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요.

그래서 리오 틴토나 글렌코어 같은 대기업들한테는 솔직히 큰 메
리트가 없는 거죠. 인수합병해도 실적에 큰 영향이 없어서요.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몇 년간은 주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5G나 IoT 같은 분야에서 수요는 계속 늘텐데, 공급은 그걸 따라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도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높은 가격
을 받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최근 주석 가격 동향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톤당 3만 달러 중반정도 까지 올랐어요.

주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

사실 저희는 시장이 균형을 찾으려면 가격이 더 올라야 한다고 봐요. **주식 가격 상승은 = 주식 생산 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의미하죠.**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옵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형 주식 생산 기업들은 중국 선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현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어요.

그나마 북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도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까다로운 지역에 광산을 갖고 있거나, 주식 유동성이 부족해서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알파민 리소스라는 회사인데요..

알파민 리소스는 세계 최고 등급의 주식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게다가 두 번째로 좋은 광산도 곧 문을 연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겠죠?

광석 등급이 높으면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돼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요동쳐도 수익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광산 모두 톤당 채굴 비용이 15달러도 안 된대요.

만약 두 광산이 풀가동되면 연간 2만 톤, 전 세계 생산량의 7%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엄청나죠?

심지어 미국은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주석을 생산하지 않아서 알파민 리소스를 전략적 자산으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계의 다크호스, 알파민 리소스!

하지만 알파민도 완벽하진 않아요.

주된 수입원이 주식에만 의존적이고,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운영하다 보니 일반적인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들보다는 리스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일반적인 기업의 주식보다 높아요.

알파민은 캐나다에 상장된 회사고 미국에서 ADR로도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실 때는 5% 이내로 비중을 제한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투' 하시고.. 이 번달은 앙드레 옹의 격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성이 울리면(전쟁이 나면) 주식을 사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전쟁이 끝나면)
팔아라.

- 앙드레 코스톨라니

